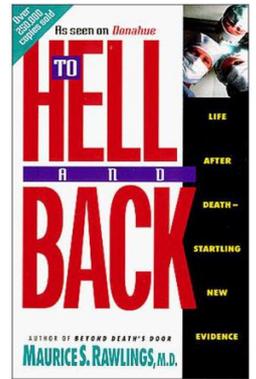


#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내용은 의사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의 연구 문서에서 발췌하였으며

[TBN Films](#) (TBN 방송) 비디오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증인]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았으며, 어떤 이들은 날아 갔고, 어떤 사람들은 포근함과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나, 제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만 느꼈습니다.

당신이 성공적일 때는 무신론자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무신론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인]

롤링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병원에 실려 왔을 때 이미 저의 머리카락이 뺏겨져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인]

죽음 너머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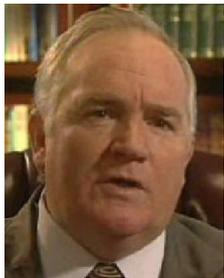
매일 사람들은, 당신과 저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구원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오직 전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돌아온 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사실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증인]**

저는 흑암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구해 주세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에 갈 수 밖에 없으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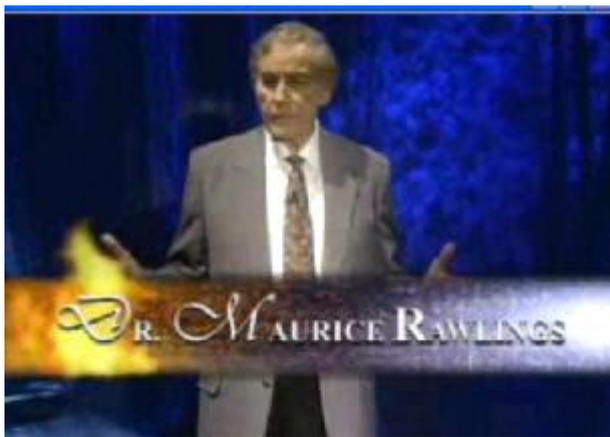


**[다섯 번째 증인]**

처참한 비명을 들었던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나운서]**

지금 이 어찌면 당신이 지옥의 길에서 돌이킬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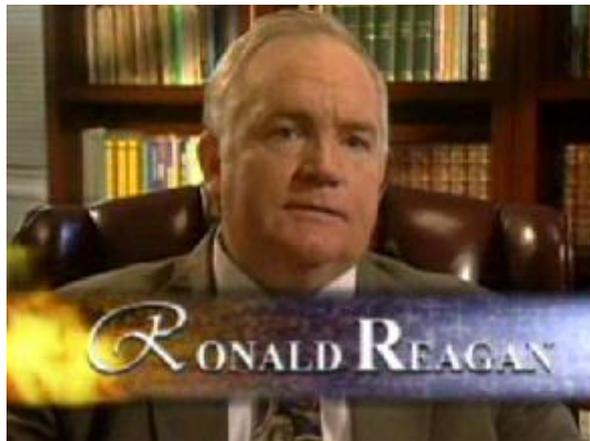
**[롤링스 박사]**

이 연구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추측하여 왔습니다. 모든 경전과 종교는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돌아왔습니까?

현대 의학은 심폐소생술 (modern resuscitation methods) 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호흡이 돌아 오게 하는데, 우리는 죽음에서 돌아 온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 연구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 온 후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쁨으로 흥분 되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성적표에 “F”를 받고 뺨을 얻어 맞은 것처럼 수치스러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지옥에 대한 체험을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갔던 곳에 여러분이 가지 않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심장 소생 방법; 방금 죽은 사람의 호흡이 다시 돌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은 이런 죽음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며, 뇌 세포가 사후 경직되기 4 분 전이 소생 가능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생시킬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저는 두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 범위 안에서 그들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지옥의 경험은 자신의 몸이 누워있는 동안에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였으며, 기쁨으로 돌아 옵니다. 그러나 로날드 레이건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상관이 없음) 의 경우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7-11 이라는 체인점 가게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깨어 진 병으로 그를 몇 군데나 찔렀습니다.



## === 로날드 레이건 ===

### [로날드 레이건]

1972 년에, 나의 인생은 파선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였고, 가정은 깨졌습니다. 아내는 두 번이나 이혼을 소송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으며, 저의 정신 상태는 참담하였습니다.

하루는 조그만 가게에 무엇을 사러 6 살난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조금 후에는 내가 미쳐

생각하기도 전에 그를 때리게 되고, 그는 병을 쏟아 놓은 곳 위에 넘어 졌습니다, 그는 금방 깨진 병을 집어 들고 일어나 저를 찌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왼 팔을 들어 그의 강타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그 병은 나의 근육과 팔의 동맥을 끊었습니다. 나는 곧 죽게 될 만큼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분노와 증오와 격함으로 나는 계속 싸웠으며, 피는 계속 흘렸습니다. 저의 어린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7-11 가게의 주인은 내가 곧 병원에 가지 않으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수 분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며 나를 병원으로 데려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의 팔을 잘라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앰블런스에 태울 때 즈음, 나의 아내가 도착하여 함께 타고 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있는데, 거기에 있던 젊은 구급 의료사가 나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그를 겨우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생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향해 나는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또 다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앰블런스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차가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으며, 나는 그 연기 안으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연기와 어둠에서 나오니, 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명과, 신음과, 울부짖음의 소리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다 보니, 화산의 입구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불과 연기가 있으며 그 불타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며 불 속에 있었으나, 그들은 타지도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입구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엘레인 레이건]

남편은 몸을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고통과 신음

소리를 내며 발 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 하였던 이유는, 제가 영적 전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의 전쟁과 같았고, 그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 때는 그가 지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 [로널드 레이건]

저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것은 이런 불길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 입니다. 그들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내게 확대되어 확연히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몸과 형체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신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이 저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로니 (로널드의 애칭), 여기 오지마, 여기에는 나가는 데가 없어, 네가 여기 들어 오면 피할 길이 없어, 나가는 길이 없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보는데, 그는 과거에 물건을 훔치다가 총에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길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마약 파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고통과 절망을 보았으며. 저가 믿기로 거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것은 외로움인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절망감의 무게는 극도에 달했으며, 거기에는 희망이나, 피할 길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유황이나 전기 용접할 때와 같은 악취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사람이 죽은 것도 보았고 나도 그들의 싸움에 말려들어 함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살인으로 감옥에 여러 번 들어 갔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 갱신소에서 자라 났습니다. 나는 어릴 때, 술 주정과 폭력적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12 살 때 집에서 도망나왔으며,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인생은 산산 조각 났으며, 결혼은 깨어졌고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는 채로, 나를 무섭게 할 죽음을 쳐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비명과 고문의 구렁이를 쳐다 보는 동안, 나는 검은 구멍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테네시주의 낙스빌에 있는 한 병원의 병실에 누워있었고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곳곳에 100 바늘이나 꿰매었고, 팔은 다행히 잘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보았던 것만 내 눈앞에 어른 거릴 뿐이었습니다.

### [엘레인 레이건]

그의 표정은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무엇인가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나 끔찍한 곳에 있었어.” 저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함께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곳에 있었어, 거기가 어딘 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나 너무 무서운 곳이야.”

### [로널드 레이건]

저는 여전히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거기의 지독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고, 내게 빨리 나가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날 동안 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술에 취하여도 취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려고 마약을 복용하였으나 무감각하여 지지 않았으며, 나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후, 어느 날 아침에 집으로 갔습니다. 밤새껏 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취하지 못하고 내가 집에 들어 갔을 때, 방으로 들어가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고, 무릎에는 커다란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올려다 보았는데, 말 그대로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니, 나는 오늘 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카고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시카고 남부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나 교회나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있는 고통과, 주름들은 저의 학대와 폭력과 술 중독이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수 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얼굴이 바뀌던 것입니다. 말그대로 주름이 퍼졌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슬픔과 고통을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같이 들어 보세요.”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살면서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아무 것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는 너무 가혹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주 정도가 지난 후, 11 월 2 일 주일 12 시 즈음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셧습니다. 나는 교회의 뒷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요한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였을 때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의 아홉 살 때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동부 테네시 산동네에서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며,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화내는 것과 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학교 버스를 타기 위해 2 마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이웃에 사는 분이 나를 불러서,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다”하고 말하며 제게 어린 양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 온 후, 그 양은 나의 친구,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양은 친구처럼 날마다 따라 다니며, 내가 학교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은 나를 기다리러 숲과 들판을 지나 왔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집에 와 보니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화를 내어 욕을 하며, 평소에 일할 때 사용하던 오래된 차에 타이어를 구식으로 손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화내며 욕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 지나려고 하는데, 다른 바퀴 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얀 털에 피가 묻혀져 있는 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몸이 타이어에 끼여 있었습니다.

양은 호기심으로 아버지가 일하는 차 옆에 왔다가. 분노와 술 주정으로 가득하였던 아버지가 타이어의 날카로운 쇠로 나의 어린 양을 밀어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린 양, 나의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소리치고 울며, “아빠가 내 양을 죽였어요, 아빠가 내 양을 죽였어요!” 하고 달아 났습니다.



9살 때, 분노와 폭력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12살에 집을 나갔고, 계속하여 소년 보호소로 들락 날락 하였습니다. 나는 권위에 대한 존경을 가질 수 없었으며, 제게 권위자로 대하는 사람들마다 미워하였습니다. 15살 즈음, 나의 차 사고로 인하여 몇 명이 죽고 몇명은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어린 양”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관심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는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그것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나는 일어나서 교회당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우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9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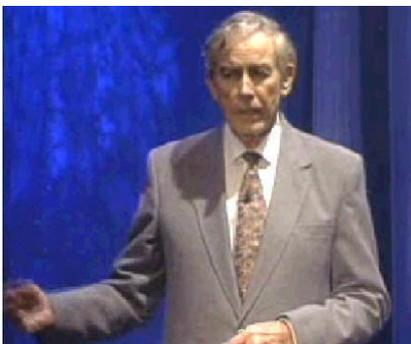
이후로 운 적이 없어. 이 세상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보면 안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였으나, 내 몸은 오히려 앞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접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구원의 이르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제발 제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남편도 아니며, 아버지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 없는 인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둠과 검은 것이 나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9살 이후 처음으로 그때처럼 흘러 나왔습니다. 죄책감, 폭력, 증오, 미움은 나의 삶에서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기억과 마약 중독을 치료하셨으며, 술 중독은 즉시로 사라졌으며,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내가 보았던 장소에 대해서와, 이런 처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

## ===육체 이탈과 죽음 근접 경험에 대하여===



[롤링스 박사]

여기에서 우리는 지옥이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궁금하여 집니다. 나는 육체 이탈 (육체가 몸에서 빠져 나오는 경험)과 죽음 근접 경험 (죽음의 가까이에 간 경험)이라는 주제에 대해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학적 죽음이란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다시 돌아 오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전환은 세포가 죽어 경직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몸의 이탈과 죽음의 근접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음에 근접한 경험은 제가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돈 내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나 (죽음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 당신이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사고날 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근처에 간 사람들은 심장이 완전히 멎거나 숨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 죽음없는 육체 이탈이나 (OBE), 죽음의 근접(NED)을 같은 현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죽음에서 돌아 온 사람들을 조사 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육체 이탈 경험은 죽지 않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깊은 취면
- 인도의 구루에게 가서 만트라와 명상법을 배움
- 약물 취면
- 수정 공을 가지고 들어 감
- 뇌의 전기 충격
- [여기에 나온 어떤 것도 실행하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육체 이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생명이 몸 밖으로 나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조작으로 만든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 이탈이나 죽음 근접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증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

## === 찰스 맥케이그 ===

이 경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은, 57세의 우편 배달부였던 찰스 맥케이그입니다. 그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동 기계로 그의 가슴에 통증이 다시 나타날 때 까지 견게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심장 박동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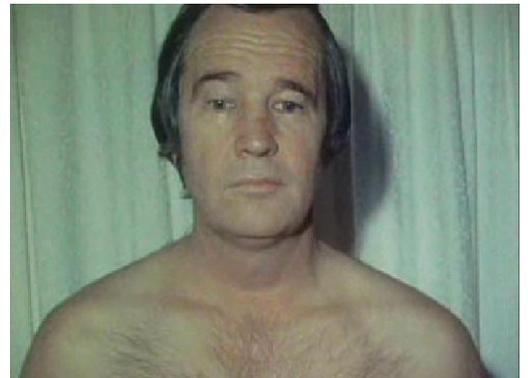
기계는 그의 통증을 신호하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기계를 멈추기 전에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죽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심장이 멈추어 피가 머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돌아 갔으며, 얼굴은 파랗게 변하였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간호원은 주사를 놓고, 나는 외형 심장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찰스 맥케이그 씨]**

롤링스 의사 선생님은 그때 나의 머리카락은 이미 뺏뺏해졌고, 눈동자는 돌아 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으며, 공포에 싸였습니다.



저의 삶은 매우 평범하였으며, 늘 파티를 즐겨하였습니다.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 인해 교회에 가게 되었으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일터에서 병원으로 걸어 갔습니다. 그때 나는 심장 마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링스 의사 선생님을 만났으며, 진단은 3-4 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 기계에서 정말 내려 오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제가 의식으로 다시 돌아 왔을 때, 롤링스 선생님은 제게 심폐 기능 소생법 (CPR) 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을 보았으며,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의사이므로 당신의 생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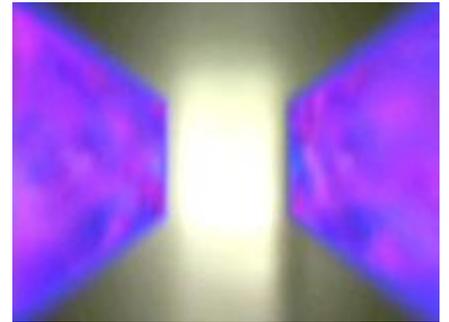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심폐 기능 소생법을

계속 실시하며, 다른 손으로 맥박 조정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계속 의식이 왔다 갔다 하였고 그들은 내게 그 일을 계속하여 나를 소생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공중으로 뜨는 것을 느꼈으며,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몸으로 다시 돌아 왔을 때는 “제발 나를 도와 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 주세요, 나는 지옥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때, 이름이 팸이라는 간호원은 “이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도움될 만한 건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롤링스 선생님은 제게 짧은 기도를 되풀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 주세요. 제가 만약 죽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세요!”

그 기도 후에, 나는 매우 큰 기쁨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붓 어머니와, 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5 개월 때에 돌아 가셨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10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그들은 저와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전부는 그들의 손이 저를 닿아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돈을 갖고 다니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니 그들에게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제가 본 것을 모두 기억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길가로 내려 갔는데, 길 양편에는 화려한 색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조금 공부하였는데, 아무도, 렘브란트라도 그런 색깔은 만들 수 없는 밝은 색이었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빛이 둘러 싸고 있었으며, 저는 그가 성령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나를 둘러싸고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 일생 중에 그렇게 기쁘고 안전한 느낌은 결코 없었습니다

### [롤링스 박사]

이 모든 일 후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중적 회심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바닥에 누워있던 무신론자를 회심하게 한 것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던 이 무신론자도 (롤링스 박사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말하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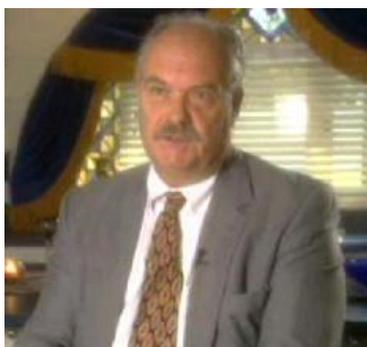
여러분 대부분은 잠깐 혼수 상태가 되는 것과, 의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의 차이를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찰스 맥케이그의 경우를 보면 그가 보행 기계에서 걷는 동안, 나는 그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1-2 분간은 쓰러지기 전 까지 여전히 걷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와 하는 의문스런 표정과, 무언가 묻고 싶어하였던 것과, 나를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죽었으나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곧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자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고, 인공호흡을 하고 나서 그는 소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의학적 죽음입니다. 의학적 죽음 이후 4-6 분이 지나면 생물학적 죽음이 오게 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뇌 세포는 죽게 되는데, 뇌 세포는 신체 중에 가장 섬세한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나무 판자와 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부활 (resurrection) 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소생 (resuscitation)” 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입니다.

## === 하워드 스톰 ===

하워드 스톰 씨는 미술 문헌 교수로서 학생들과 파리에 있었을 때 갑자기 위장과 위궤양, 그리고 복막이 파열되고 마비되어 의학적 죽음과 소생과 지옥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스톰]

나는 38 세 때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아내와 함께 유럽 견학을 가서 3 주간의 여행을 끝내고 오기 마지막의 전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리에 있는 동안 오전 11 시쯤. 위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생에서 가장 격렬한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며, 차기도하고 마루를 돌며 비명을 질렀으며, 나의 아내는 응급 구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한 의사가 앰블런스와 함께 와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았으며, 앰블런스는 시내를 8 마일을 가로질러 공립병원으로 나를 싣고 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다른 두 의사와 함께 조사를 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술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외과 의사가 없어서, 나는 거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8 시간에서 10 시간동안 약도 없고 정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막연하게 위급한 수술을 해 줄 의사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밤 8:30 이 되어 간호원이 들어 와서 담당 의사가 오늘은 오지 않고 내일 온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는 내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계속 살아있게 했던 한 가지는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증 이후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의 마지막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간호원이 의사가 다음 날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에, 나는 아내에게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일어나서 나를 안고,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말하였는데, 참으로 슬펐습니다. 20 년간을 함께 하고 난 후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음을 알고 그녀는 의자에 앉았으며, 나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돌안누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깐 후, 아마 몇 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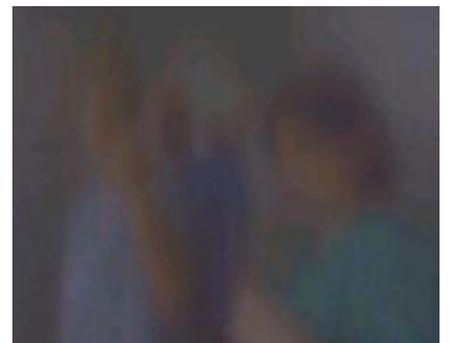
나는 의식이 다시 돌아 온 것 같아 눈을 떠 보니 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었으며,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나의 생각에는 전혀 혼란이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으며, 내가 생전보다 더 실제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은 그때 유령이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며, 나는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방을 둘러보니, 침대에 어떤 사람이 가벼운 천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가를 구부려서 들여다 보았는데 나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여기 살아 있으니까요, 나는 더욱 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말을 했으나, 그녀는 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내가 나를 일부러 무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매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대에는 왜 나처럼 생긴 사람이 누워 있나?” 그러면 그 몸이 나 자신인가 하고 의심을 해 보려하였지만, 그 생각은 너무 끔찍하였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부드럽고 친절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하워드씨, 지금 우리에게로 속히 와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방문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도는 우중충하였고, 모두 회색이었습니다. 밝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 얼굴도 옷도 회색이어서 나는 아마 병원 유니폼입은 병원 사람들인가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수술실로 데려 가려고 의사가 보낸 사람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 이해 해, 우리가 알아. 여기로 와 하워드, 어서 와, 이쪽으로 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밝고 깨끗한 방을 떠나 습하고 칙칙한 복도를 통하여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 갔으며, 그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알려고 하니, 거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시간이 없는 것을 보니 나는 환각



상태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을 내가 다시 환산해 본다면, 나는 아마 내쉬빌에서 루이빌까지 정도를 (281 킬로미터) 이 사람들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그들은 나를 둘러 싸고 있었으며, 나를 계속 가도록 재촉하였는데, 갈수록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그들은 드러 내놓고 나를 위협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에게 꿀처럼 달게 말하여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갈 때는, “빨리 가, 계속 가, 입 닥쳐, 그만 물어!” 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악하여져 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어두운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협적이었으며,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가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왔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싸우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빠져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끌고 당기고 하였으며, 더 많은 그들의 편이 왔습니다. 원래 그들은 조금이었으나, 어두운 곳에는 수 백 수천이 있었으며,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나를 파괴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그들은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므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추악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톱을 찢고 나서, 나를 할퀴고, 도려내며, 찢고 물어 뜯었습니다. 나는 방어를 하고 싸워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벌떼와 같이 수 백명이 몰려 한꺼번에 달려 들게 만들었습니다.

곧 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그들은 나의 모든 곳에, 안과 밖을 고통으로 찢었습니다. 육신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이 붕괴되었다는 감정적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불의나 부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양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더 이상 기억이 안나.”

나는 지난 23년 동안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주일 날,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란 내가 여태까지 배워 왔던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조국: 미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한 소절: 역자 주). 잠깐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렇지 이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8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아브라함 링컨의 연설문 중에 나오는 말: 역자 주) 나는 모든 것이 뒤섞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나를 해하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비명과 고향과 소리를 질러 대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평생 듣지 못한 최악의 신성 모독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으며 그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안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계속하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들을 기억해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뒤섞여 있었고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두 다 물러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거기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행하였던 일,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은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나의 성인 전체의 삶이 이기적이었고,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들이 나를 공격하였던 것은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괴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때 그들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았으며,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것도 없는 세상,

이기심과 잔인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과 자신을 해하기 위하여 영원히 끝이 없는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내게는 합당한 장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오기에 당연한 사람이라고 여겨 졌으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못 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끝이 없는 시간동안 누워 내가 처한 운명에 대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나의 생각 저편에서 나의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 앉아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라 라 라, 예수 사랑하심은, 라 라 라.” 나는 내가 아이 때에 불렀던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입니다.

내 인생에도 어렸을 때 순진하였고, 어떤 좋은 것을 믿었으며, 나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며, 진정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준 분을 믿었을 때가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었고 내가 던져 버렸던 것이며, 내가 배반하였으며, 내가 되찾고 싶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으며,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의 사랑을 몰랐으나, 이제 그의 사랑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나는 그 분이 실제로 계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실재이시기를 바랐습니다. 나의 일생에도 내가 무언가를 믿었던 때가 있었으며, 나는 그것이 진실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그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실낱같은 조그마한 빛이 어둠으로 들어 왔는데, 순식간에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 물리적 세계에서라면 내가 타 버렸을 것이며 바짝 마르게 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뜨거운 것이나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빛 속에 계셨으며, 내게 내려와 나를 부드럽게 떠서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의 빛으로 보니, 나는 전적으로 피투성이와 더러움과 상처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는 차에 치여 죽은 동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운 아래에 손을 넣어 나를 포근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가 내게 닿자마자,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더러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증기처럼 사라졌으며, 나는 온전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의 사랑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에 일어난 최고와 삶의 전부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알게하는 생명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당신들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붙들고 껴안으시고 부드럽게 만져 주셨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어머니가 딸에게 하듯, 나의 등을 부드럽게 만져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감으로 어린 아기처럼 구부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잃은 자였으나, 이제는 찾은 자되고,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생명으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를 안고 나오셨으며 우리는 날아 올라 갔습니다.

빛의 세계로 향하여 올라 갈 때, 나는 엄청난 수치심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으며, 더럽고 쓰레기와 걸레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거야,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나같이 나쁜 사람을 왜 돌보시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 머물렀는데, 거기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서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는 여기에 속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는 내게 여러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나의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던 천사들을 데려 오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르게 한 것과 잘못된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였을 때는, 천사들이 기뻐하였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였을 때는 천사들도 슬퍼하고 예수님도 슬퍼하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호두 껍질 같은 것 안에 넣어서, 내게 실어 나르려고 하였던 것은 나의 전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창조된 이유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배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은 가장 재미있고, 가장 흥미로우며, 가장 놀라운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이며, 나도 거기에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아직 맞지 않고, 올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창조하신 방법으로...



나는 그들 없이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면 나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을 것이며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몰라? 무엇이 문제야? 우리가 여기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잖아.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우리는 너와 언제나 같이 있을 거야. 우리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어.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한 번씩 알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의미는, 나의 염려나 걱정이나 소망이나 나의 꿈이나,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항상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에 느낀 것과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 내게 확신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겠다고 하며 나를 보내었습니다.

그후에. 의사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 간호원이 방으로 달려와 의사가 도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병원에서 밤 9 시나 9:30 분 즈음에 의사가 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간호원은, “의사가 방금 도착하였으니까, 지금 곧 수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들어와 아내를 나가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내는 너무 놀라 하며, 나를 죽어가는 사람처럼 쳐다 보았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이상한 것은 그 기억이 전혀 희미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현재 시제이며, 글썄, 시제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내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나누어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 === 거리 대답 ===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어나운서]

거리에서의 임의 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한 곳에서 다른 곳에 이르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행인 #1 (남자)]

저는 지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천국은 있다고 믿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지구에 있었던 것 보다, 다른 곳へ 가서 더 길게 살겠지요. 이 생애 다음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다.



#### [행인 #2 (남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꼭 성경에서 말하는 불 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자신의 개념 속에 있는 가장 심한

두려움이나 악일 수 있으며, 영원히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천국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산 만큼 평화롭게 당신의 나머지 일생을 사는 곳입니다.



**[행인 #3 (여자)]**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요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군요 지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설명할 할 수 있지요.



**[행인 #4 (남자)]**

저는 천국 가기 위해 꼭 교회를 다녀야 한다거나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지요. 지옥은 극소수의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누구를 살인한 사람처럼. 살인은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인 #5 (여자)]**

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게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지 정말 확실히 모릅니다.



**[행인 #6 (남자)]**

저는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구요. 그러나 누구나 가는 중간 지점 같은 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주 편안한 데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곳도 아닐 것입니다.



**[행인 #7 (여자)]**

나는 모두가 자기 생각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든, 다른 신성이나 영원이든 천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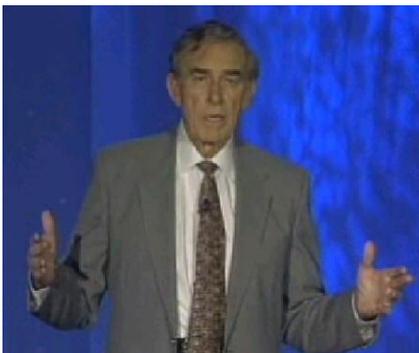
존재한다는 것이든, “자기 자신의 믿음”에 의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삶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딸은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뒤에 어디엔가에는 인간의 인생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의 전부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인 #8 (여자)]**



나는 나 자신의 믿음이 형이상학적 믿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지구에서 느끼는 것으로 당신이 어떻게 천국을 알겠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개념이죠. 죽음도 같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근원이 당신 속에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며, 죽은 후에 그 일이 일어 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지 않았다고 불이 가득한 곳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답 종료]**



**[롤링스 박사]**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내용을 희석시키든지,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자!”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이라는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나?

지옥은 없다, 이것이 뉴 에이지의 철학입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뉴에이지 자원 봉사자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문병하여 뉴에이지의 철학을 전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종교로서 그들의 죽음 근접 경험의 종교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며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빛을 보았고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거기는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없었고, 지옥도

없었어요. 천국의 문은 죽는 모든 사람이 들어 가도록 넓게 열려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지금 여기 있어요. 당신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당신 가족은 당신이 죽을 때 옆에 있기를 두려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손을 잡고 있을게요. 당신을 데리로 올 영광스런 것에 대해 말해 드릴게요. 이 터널을 지나면 아름다운 빛이 있을 것이며, 걱정이 없고, 잃는 것은 없고 오직 얻음만 있지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천국이란 곳도 지옥이란 곳도 없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천국에 간다는 오메가 페이스 (Omega Faith) 이라고 부르는 뉴에이지의 철학입니다. 교회가 죽어 가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병원들로 돌아 다니며 죽는 자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두가 죽어 가는 환자를 두려워 합니다. 그러나 죽어 가는 환자들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죽음은 아프게 하는가? 죽음 이후에 삶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내가 천국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거저 받는 선물인 것과 어떻게 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병원을 죽음으로 휩쓸고 있는 오메가 페이스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환자들은 전혀 믿음이 없이 별거벗은 채로 죽게 될 것입니다.

## === 도널드 위티커 박사(의사) ===



다음의 사례는 현재도 시술하고 있는 의사인 위티커 박사이며 사고 당시에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나 그의 상황은 그의 삶을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 [도널드 위티커 박사]

1975년 2월에 나는 술을 조절하지 못했으며, 마약도

재조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이 나를 마약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는 유흥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부 해안지역에서 TV 특별 방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이트 (친구) 는 내게 전화하여 오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술 잔치와 파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나의 일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 삼, 사일이 지난 후 나는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나의 친구인 국회 의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프니 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보내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는 1975 년 2 월, 텍사카나에 있는 와틀리 병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약물 중독 검사를 하였는데, 내 몸의 약물의 정도는 수치를 훨씬 넘어,



수치를 내리는 주사를 계속 놓았습니다.

그 때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며 나 자신만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 중심이므로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1975 년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자신에 대해 깨달은 것입니다.

삼일 후에 수술을 받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였고,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깨어 날 때 즈음 사람들은 나의 증세가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병원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의 머리는 길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하였습니다, “와, 이사람 머리는 정말 기네.” 다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더 길어 질거야” 그러니 세 번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못 나가, 곧 죽을거야.”

삼일 후에 나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과 주치의 도날드 던컨 의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도날드, 무엇이든 정정해야 할 일이나, 사인을 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속히 해야 하네. 생명을 몇 시간 남았는지 정확히 모른다네.”



나는 “급성 출혈 마약 중독성 췌장염” 이라고 부르는 나의 증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살수 없는 것입니다. 췌장염으로는 살 수 있으며, 그것이 급성이라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출혈 마약성 췌장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던컨 의사는 나의 두 아들에게 내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임을 자처하였던 나는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주의 힘을 믿었으며,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과 의사로서 생명과 죽음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하지 말라,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종류는 언급도 말라’고 했던 것은 나는 연구 조사와 과학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와 과학 분야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 갈수록 어떤 질서를 보기 때문에, 우주에는 스스로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으로 이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공적일 때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만일 오클라호마 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힘있는 사람이 되어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을 때는 무신론자가 되기란 매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를 뒤로 제치고 앉아서, “난 하나님이 필요없어, 하나님이 뭐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무신론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만일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게는 나와 지옥 사이에서 있었던 론 쇼트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토론을 하였으며, 나는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중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만일 론이 맞다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내 마음을 가장 누르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론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든지 그대로 하기 원하였으므로 그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린 한 남자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날 밤에 론은 집에 없었고 알라바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론을 데려 오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은 내 일생 중에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나는 어둠으로 빠져 들어 가게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을 관통할 만큼 어두웠습니다. 나의 몸은 떠났다가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몸 밖의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빛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 떠오른 것이나, 따스함이나 사랑의 느낌을 이야기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포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멀리 갔다면, 내가 멀리 미끄러졌다면 다시 돌아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간호원들은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그날 밤에 침대보를 당길 뿐 아니라 침대까지 내위로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든지 나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시 몸을 떠나기 시작하고, 깊고 어두운 공포로 빠져 들었습니다. 나의 살갓은 차가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기 중에 걸을 때느끼는

차가운 종류가 아닌, 뼈에서 냉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가 다리에서 올라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시 내가 몸에서 떠나고 허공의 어둠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 몸으로 들어 가는데 나의 육신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겪은 일 중에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30 이나 10 시 쯤 되었을 때 론을 들어 왔습니다. 그는, “위티커 박사님,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전혀 가망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시간이 되었군요” 라는 말에 나는, “맞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에게 욕을 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짧은 시간동안 지구를 떠나 어디에 갔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론은 내게 영접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영접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나 나는 론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영접 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25 년이나 26 년간 모든 종류의 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화학에 학위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의료와 약에 대해 박사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그 책에 써져 있으므로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책이었으며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론에게 영접 기도를 인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강이 내 위로 임하였습니다.



나는 그 평강을 술병에서 찾고, 바늘과 마약에서, 그리고 여자에게서 찾아 헤매었습니다. 모든 곳으로 그것을 위해 찾아 다녔으나. 내게는 그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단 번의 기도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병을 알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과 의사였기에 이 병을 가지 사람은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론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여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18).

나는 지금도 지구를 걷고 있으며, 아무 인슐린이나 효소 약도 복용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며, 약을 투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합당한 음식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 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볼 때, 저는 자가 걷는 것을 볼 때, 문둥병자가 깨끗해 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볼 때,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 항공 과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죠지 로도나이야 박사 ===

### [롤링스 박사]

지옥의 여러 단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양상을 줄까요? 성경은 지옥이 불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 본다면,

- “쫓겨 나서 던져 지는 곳”
- “하나님과 분리된 곳”
- “전적으로 어두운 곳”
-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대부분의 지옥은 불로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1:14](#)에는 심지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터널의 끝에서 보는 그 천사는 어느 천사였을까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거기에 보내진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 장**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2:26**). 그 뜻은, 왜 사탄이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어 자신의 나라와 그의 거짓말을 무너지게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사탄은 천사로 보여서 수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인 어둠의 지옥에 갔든, 불의 지옥에 갔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결코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젊은 러시아 청년으로서 매우 총명한 조지 로도나이야 박사의 경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의사와 철학 박사였으나, 소련 연방 경찰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러시아에서 나오려고 하였을 때 소련 연방 경찰이 길가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차로 치고 그 몸 위로 지나 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게 된 경위이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조지 라도나이야 박사]**

정신과 의사와 신경 병리학 의사로서 나에게서는 하나님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은 적이나, 성경을 믿은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1976 년에 나는 20 살이었는데, 이미 러시아 조지아에서 일하고 있는 박사였습니다.

나는 텍사스에서 온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 나라를 떠나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도와 주려고 하였으며, 그것이 연방

경찰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뇌의 신경 이식을 맡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옥시토신의 연결과 함께 나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중요한 과학자였으므로 소련 연방 경찰은 내가 가는 것을 원하지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데려 갔습니다 .

뉴욕으로 가려고 채비를 차리고 보도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차 한대가 와서 나를 치었습니다. 나는 10 미터나 공중으로 몸이 뿔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 차는 내 몸 위로 달려 지나 갔습니다. 내 친구들과 친척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 갔습니다. 나의 친구였던 병원의 의사들과 다른 두 교수들은 내가 죽었다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들은 나를 영안실의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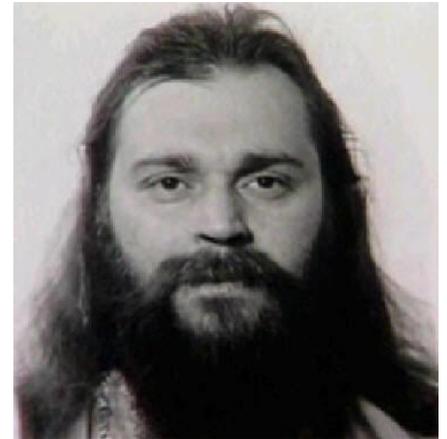
그들은 삼일 후, 월요일 아침에 나를 꺼내어 사후 부검을 하였습니다. 그 삼일 동안 나는 나의 몸에서 나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 자신, 나의 몸, 나의 탄생, 나의 부모, 아내, 나의 아이,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을 보았고, 그들의 생각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 전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압박함으로 내리 누르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둠이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중심에 있던 나는 왜 이 어둠이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을 보았으며, 그 빛의 조그만 구멍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매우 힘이 있었고, 강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은 매우 강하게 내 육체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이 두려워 피하려고 후미진 곳으로 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었냐구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생명의 빛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빛이며, 어둠은 어둠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 빛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련에 대해 아시는 바대로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3 일 동안 영안실의 냉동실에서 나의 모든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3 일 후, 의사들이 부검을 시작할 때, 나의 가슴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신체 절단에 나는 눈을 떴으며 그들은 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눈이 빛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의 폐는 오랫동안 재기 불능이 되어 산소 호흡기를 90 일 동안 착용하였습니다. 나의 회복은 빠르지 않았으나, 나의 생명은 돌아 왔습니다. 그들이 부검할 때, 나의 생명은 돌아 왔으나 모든 장기가 돌아 온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9개월 동안의 회복 기간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내가 살아 나도록 도와주었으며, 나의 건강과 장기가 재생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 났을 때 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 났습니다. 수 없이 많은 거부를 당하며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알고 나의 길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텍사스의 롱뷰에서 온 여자분은 나를 미국으로 오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텍사스로 와서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해 밖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성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왜 내게 그것을 보여 주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정직히 말해서 내가 관심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망치지 않는다면 더 나은 것과 더 놀라운 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 === CPR Instructions 심폐 소생술 방법 ===

자세한 자료: <http://globalcrisis.info/cpr.html>



[롤링스 박사]

이제 여러분에게 CPR (심폐 소생술) 을 실시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올라지고,

숨을 마시게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맨손으로 하여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괜찮은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독극물을 마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즉시로 살펴 보고, 느끼고,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귀로 들어 보아야 합니다. 가슴이 움직이고 코가 움직입니까? 어떤 공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폐쪽으로 가십시오, 심장은 잊어 버리고 폐의 호흡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십시오.



턱을 들어 올리고 입 천장을 눌러 공기가 들어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폐를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코를 잡고 당신의 공기를 인공호흡하여 그 사람의 폐를 팽창하게 합니다. 두 번 빠르게 불어 넣으세요. 그리고 그의 격막이 올라 오는지 보십시오. 만일 올라 오면, 그의 기도 (공기가 들어가는 길) 는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단되어 있으면, 다시 두 번 더 인공 호흡을 하고 기도를 열도록 깊이 불어 넣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귀로 들리지 않고, 목의 돌출 부분의 양 옆에 동맥에서 맥막 뛰는 것이 느껴 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두 번 빠른 호흡 후에, 흉부의 2 인치 위의, 한 쪽 가슴 뼈 격막에 한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같이 엮어, 당신의 무게로 그 사람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생명에서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죽기 전에 붙잡아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실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길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며, 당신의 잘못이며, 저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누구나 원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복음을 그들에게 주려고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 결론 ===

이 모든 지옥에 대한 경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있는 것을 놀라게 될까요? 저도 놀라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까요? 지옥은 새로운 곳이 아니며,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죽었을 때 알게 되었을 뿐이며, 그리고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로도나리아 박사]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 [위티커 박사]

믿음의 기도, 구원의 기도는 단지 짧고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에게나 경배할 수 있고, 반대 별레도 섬길 수 있으며, 나무를 쥐어 찢 수도 있고, 수정을 섬길 수도 있고 별을 섬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그이 아들을 통하여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 [로날드 레이건]

제발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사정합니다.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여러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 [찰스 맥케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 [하워드 스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 [찰스 맥케이]

이 일은 나의 일생에 일어 난 일 중에 최고의 일입니다.

### [하워드 스톰]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당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로날드 레이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증오와 폭력과 학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 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 [위티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 [하워드 스톰]

선택하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이 아닌,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 [찰스 맥케이]

여러분이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은 영접하십시오.

### (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롤링스 박사]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은 증언입니다. 지금이 결심할 때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제시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없이 자신의 전 생애의 방향이 비편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결정하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일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겠습니까? [계시록 3:20](#)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지금 문을 두드리십니다. “만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 가리라.” “내가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함께 교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네가 더러우면 있는 그대로 오너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과 교제를 하시며 당신의 삶이 어떻게 정결해 지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내게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라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당신의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 (요한복음 11:25-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들

롤링스 박사의 실화 기록 연구 에서 발췌

번역: 이 명주 (myongkyo@daum.net)